

46권 2호(p.293-304)의 “간호사의 범문화효능감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오원옥, 박은숙, 석민현 & 임여진. 도구의 검증부분 중 p.298의 Table 1과 p.300의 Table 4 및 관련본문 내용의 오류를 정정합니다.

1) p.293 - Abstract - 8줄

Before correction

The 25-item TCSE-scale was found to have three sub-scales -Cognitive, Practical, and Affective domain-explaining 91.5% of the total variance.

After correction

The 25-item TCSE-scale was found to have three sub-scales -Cognitive, Practical, and Affective domain-explaining 37.0% of the total variance.

2) p.298 - 연구결과 (1)구성타당도 - 좌측단 6~7줄

Before correction

3개 요인의 설명 변량은 1 요인 58.1%, 2 요인 21.8%, 3 요인 11.6%의 총 9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Table 1, Appendix 1).

After correction

3개 요인의 설명변량은 1요인 7.5%, 2 요인 17.9%, 3 요인 11.6%의 총 37.0%로 나타나 문항들이 TCSE 분산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1, Appendix 1).

3) p.298 - 연구결과

Before correction

Table 1. Factor Loading of Questionnaire

Items	Factor 1	Factor 2	Factor 3
(중략)			
Eigen value	4.48	2.91	1.87
Explained variance (%)	58.1	21.8	11.6
Total variance (%)	58.1	79.9	91.5

KMO=.81; Bartlett test of sphericity=3536.55 ($p < .001$)

After correction

Table 1. Factor Loading of Questionnaire

Items	Factor 1	Factor 2	Factor 3
(중략)			
Explained variance	1.87	4.48	2.91
Explained (%)	7.5	17.9	11.6
Cummulation (%)	7.5	25.4	37.0

KMO=.81; Bartlett test of sphericity=3536.55 ($p < .001$)

4) p.299 - 연구결과 (4)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 우측단 10~18줄

Before correction

TCSE-scale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tive validity) 검증을 위해 다속성-다문항 매트릭스(Multitrait/Multi-item Matrix) 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 4). 상관계수가 .40 이상일 때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22], TCSE-scale의 각 문항의 상관계수가 .54~.79로 나타나 100%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반면, 판별타당도는 TCSE-scale 의 모든 문항이 해당 영역 이외의 영역과는 변별되는 낮은 상관을 보여 판별타당도 역시 확보되었다.

After correction

TCSE-scale을 구성하는 문항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tive validity) 검증을 위해 다속성-다문항 매트릭스(Multitrait/Multi-item Correlation Matrix) 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 4). 상관계수가 .40 이상일 때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22], TCSE-scale 각 문항의 상관계수가 .40~.66으로 나타나 문항의 수렴타당도는 100.0% 확보되었다. 또한, 문항의 판별타당도는 TCSE-scale 의 각 문항이 자신이 속한 하위영역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해당 영역 이외의 영역과는 변별되는 낮은 상관을 보이며, 각 문항과 자신이 속한 하위영역과의 상관계수와 다른 영역과

DOI of original article: <http://dx.doi.org/10.4040/jkan.2016.46.2.293>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uk, Min Hyun

College of Nursing, Cha University 120, Hearyong-ro, Pocheon-si, Gyeonggi-do 11160, Korea
Tel: +82-31-8017-5851 Fax: +82-31-725-8229 E-mail: chnursing@cha.ac.kr

의 상관계수의 차이가 상관계수 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correlation coefficient)의 2배 이상 크면 문항의 판별타당도가 확립된다고 볼 수 있는데[22], 25개 모든 문항에 대해 1개의 문항이 임계치를 벗어나 96.0% 문항 판별타당도를 보였다.

5) p.300 - 연구결과

Before correction

Table 4. Multitrait/Multi-item Matrix of TCSE-scale (Correlation Matrix Corrected for Overlap)

Sub-domain	Items No.	Cognitive r	Practical r	Affective r
Cognitive	1.	.75	.17	.36
	~	(중략)		
Practical	4.	.79	.29	.41
	~	(중략)		
Affective	5.	.29	.59	.23
	~	(중략)		
	16.	.19	.54	.10
	~	(중략)		
	17.	.04	.32	.55
	~	(중략)		
	25.	.16	.20	.59

After correction

Table 4. Multitrait/Multi-item Matrix of TCSE-scale (Correlation Matrix Corrected for Overlap)

Sub-domain	Items No.	Cognitive r	Practical r	Affective r	2 Standard Error
Cognitive	1.	.54	.17	.36	0.109
	2.	.58	.16	.27	0.105
	3.	.52	.20	.35	0.110
	4.	.60	.29	.41	0.103
Practical	5.	.29	.51	.23	0.111
	6.	.33	.60	.28	0.103
	7.	.27	.66	.27	0.097
	8.	.28	.62	.13	0.101
	9.	.32	.62	.09	0.101
	10.	.28	.47	.21	0.114
	11.	.34	.59	.23	0.104
	12.	.27	.48	.16	0.113
	13.	.24	.61	.25	0.102
	14.	.34	.54	.27	0.109
	15.	.30	.48	.27	0.113
	16.	.19	.42	.10	0.117
Affective	17.	.04	.32	.40	0.118
	18.	.24	.25	.51	0.111
	19.	.16	.12	.43	0.117
	20.	.32	.29	.47	0.114
	21.	.18	.20	.60	0.103
	22.	.15	.15	.47	0.114
	23.	.18	.11	.54	0.109
	24.	.09	.05	.48	0.113
	25.	.16	.20	.45	0.115

6) p.301 - 논의 - 좌측단 40~우측단 7줄

Before correction

우선, 타당도 검증과정에서 (중략)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After correction

우선, 타당도 검증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의 검증 이외에도 예비문항 작성과정에서 내용타당도, 동시타당도, 준거타당도, 문항 간의 수렴 및 판별 타당도의 검증을 통해 도구의 타당성을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국내 도구개발 연구에서 타당도 검증을 위해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를 모두 보고한 연구가 14.8% 정도에 불과하며, 한 두 가지의 타당화 검증만으로는 개발된 도구의 타당도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타당화와 관련된 다양한 논리적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도구 사용을 위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2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의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된다.

7) p.301 - 논의 - 우측단 14~20줄

Before correction

첫째, 높은 설명 변량의 유지이다 (중략) 둘째, 범문화효능감의 이론적 구성의 재확인이다 (중략) 셋째, 우리나라 상황에 (중략) 기대된다.

After correction

첫째, 범문화효능감의 이론적 구성의 재확인이다. 문화적 역량과 범문화효능감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CCC 모델에 근거하여 개발된 TCSE-scale은 간호사와 대상자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인 인지영역, 실무활동에 대한 확신감인 실무영역,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 등에 대한 정서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설명변량이 37.0%였다. 이미 개발된 문화효능감 도구를 살펴보면, CSES가 문화개념, 생활양식, 문화적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TSET도 인지영역에서 지식에 대한 자신감으로 포함하고 있어, CCC모델이 제안하고 있는 이론적 구성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범문화 효능감의 최초개발에 대한 (중략)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8) p.301 - 논의 - 우측단 32~40줄

Before correction

첫째, 본 연구의 (중략) 확장적 요인분석의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중략) TCSE-scale 적용연구를 제안한다.

After correction

첫째, 인지, 실무, 정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TCSE-scale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적분산설명량이 37.0%로 범문화효능감의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문화효능감은 자신과 타문화에 대한 차이 인식, 개방성을 바탕으로 구현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9,10], 위와 같은 결과는 TCSE-scale에서 밝히지 못한 또 다른 속성의 존재를 의미할 수 있어, 질적 연구를 통한 추가적 속성 규명 연구를 제안한다.

9) p.302 - 결론 - 좌측단 7~19줄

Before correction

TCSE-scale은 문항 수가 적으면서도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어 (중략) 제안한다.

After correction

본 연구에서 개발된 TCSE-scale은 개발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을 시도하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문항 수가 적고, 다양한 문화를 고려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구성을 위한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된 범문화효능감의 구성요인과 문항의 내용은 향후 간호사의 범문화효능감 증진을 위한 실무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과정에서는 범문화효능감의 속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도구의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도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탐색적 연구가 필요함을 밝힌다.